

호 스피 스

— 의료에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

이 경 식 교수

〈가톨릭의대 내과〉



□ 목 차 □

1.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2. 호스피스 활동의 실례와 그 성과
3. 의료에서의 필요성
4. 국내 호스피스의 방향

- ◇… Hospicecare 란 임종환자들을 대상으로…◇
- ◇…육체적 치료와 영적치료 즉, 정신적 정서…◇
- ◇…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선종…◇
- ◇…(善終)을 맞도록 해 주는 봉사다. 현재…◇
- ◇…미국·가나다 등지에서 주로 암환자를 대…◇
- ◇…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활동은…◇
- ◇…1967년 영국에서 한 여의사가 암환자를 대상…◇
- ◇…으로 입종간호를 한데서 유래했으며 국내에…◇
- ◇…선 지난 82년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원목실…◇
- ◇…에서 성직자·의대생·교수등이 활동을 시…◇
- ◇…작한 것을 시초로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는…◇
- ◇…간호원·의사등 의료팀과 자원봉사자에 이르…◇
- ◇…기까지 확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 ◇…이글이 우리 가톨릭 의료기관에서의 호스피…◇
- ◇…스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聖…◇
- ◇…醫學報(가톨릭醫大月刊 84년 9월 제 270…◇
- ◇…호)에 게재된 것을 소개한다.〈편집자註〉…◇

1.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란 중세기때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쉬어가도록 만든 숙소에서 나온 말이며 근세에 와서는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쉬어가도록 돌봐줄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으나 「선종봉사」라 쓰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는 이러한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이때는 죽어가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한단위로 돌봐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성직자, 봉사자가 한 호스피스 공동체가 되어 환자에 접근하는 것이며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들의 병을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종류에는 병원에서 돌봐주는 병원 호스피스와 집에서 돌봐주는 가정 호스피스로 나누어지며 현재에는 장소보다는 하나의 정신인 호스피스 운동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2. 호스피스 활동의 실례와 그 성과

그간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으며 우리들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으나,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중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2년전 우리 호스피스가 처음으로 학생 호스피스로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십대의 남자환자가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환자와 가족은 간암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간암이라는 진단을 비밀로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집안은 중류정도의 단란한 가족이었으며, 신앙적으로는 가톨릭이었으나 냉담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예후가 불량하여 수개월내에 사망하리라 생각하였으며, 생명연장을 위하여 항암치료를 시도하였습니다. 원목신부님과 의사의

소개로 호스피스 학생들이 그 환자와 가족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기도 하고, 너무나 심한 세대차로 대화가 잘 안되기도 했으나 학생들은 매일같이 꾸준히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은 그 환자와 가족과 친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같이 있어 주는 학생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자기의 젊은시절 이야기도 해 주었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때 간호원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였습니다.

환자가 항암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퇴원하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번씩 방문하였습니다. 원목실에서는 본당에 연락하여 많은 교우들이 그 환자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환자와 가족과 대화를 나눈 후 병원에 와서 원목실과 담당의에게 연락하는 등 다리역할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병이 점점 중해지자 환자는 자기의 진단과 예후를 알고 싶어했으며 가족은 간암이라는 말을 못하고 의사에게 말기기를 원했습니다. 학생들의 중개 역할로 그 환자는 의사와 만나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았으며 자기의 마지막 여생을 잘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신부님께 찾아가 고백성사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종하였습니다. 환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했으며, 이 말을 전해주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스피스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맨 먼저 환자의 변화였습니다. 그 환자는 오랫동안 병담상태였으며, 자기가 간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먼저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감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만 왜 외롭게 죽어가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기에 학생들이 사랑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자기를 진

심으로 생각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본당에서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 기도와 위로를 해 주는 것을 보고는 점차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백성사를 보고 마지막 길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 환자는 고귀한 영혼의 구함을 받았으며, 이 호스피스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평화속에서 영혼의 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환자들의 가족은 어떠한가요?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에게 감사하였으며 또 하느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좋은 미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마지막 한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학생들이나 본당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줄 때 어느 가족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는 주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하느님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은 다투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그 환자와 가족을 만나는 동안 한결같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서 그들도 깜짝 놀랐으며, 그때의 감동적이었던 인상들은 지금까지도 그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학생생활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하였으며 지금은 의사가 된 어떤 학생은 그때의 참된 의사생활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또 저의 동료의사가 말하기를 호스피스 활동 경험이 있는 의사나 간호원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것 같다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주는것 보다는 받는것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간호원들의 변화입니다. 많은 간호원들이 이 호스피스를 통하여 변화되었으며 그들은 참간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

일같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짜증만 나던 간호원생활이 이제는 성스러운 직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성은 누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때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가는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간호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요? 환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 간호원, 의사, 성직자, 봉사자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호스피스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찌서 그렇게도 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스피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3. 의료에 있어서 호스피스는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호스피스 실례를 통해서 이해하셨겠지만 호스피스가 의료에 꼭 필요한 이유를 저 나름대로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까 합니다.

첫째, 호스피스는 참다운 의료의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호스피스에 참여했던 학생이 참된 의술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호스피스간호원이 참된 간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한 바와 같이 호스피스는 참다운 의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호스피스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사랑과 기초를 둔 의술과 간호가 참다운 의료의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의료의 단단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같이 치유시킬 때를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를 둔 의술과 간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의사와 간호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천

직이며 그 의료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참다운 의사가 되고 참다운 간호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호스피스는 의료에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줍니다. 여기에서 들은 실례에 있어서와 같이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성직자, 간호원, 봉사자, 의사들이 한 호스피스 공동체를 이루어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들 의사나 간호원들은 우리들만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봉사자와 함께 환자를 치료할 때 짝 짝 놀랄만한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바로 그들이 환자들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대학과 병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학에 실천한다는 기치아래 설립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성직자와 의료인이 힘을 합하여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호스피스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로써 그 이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지로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변화로써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호스피스는 의료의 수준을 높여 줍니다.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은 의술을 통해서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높은 의학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간단한 병을 갖고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통증이 심하여 이의 적절한 조절이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의 사용에 정통하여야 하며, 방사선요법이나 다른 대증요법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같이 호스피스에는 높은 의학의 수준이 요청되며, 현재 우리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원의 계속적인 호스피스 모임을 통하여 간호원들도 높은 의학 수준을 갖게 되었으며, 자체내의 간호교육으로 간호수준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실지로 우리병원의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위한 의학수준과 간호수준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호스피스를 통해

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높은 호스피스 학문을 도입하고 자체 연구로써 명실공히 한국내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국내 호스피스의 방향은 ?

저는 지난 6월경 미국 호스피스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읍니다. 미국 호스피스는 이미 1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아주 보편화되어 암환자를 치료하는 곳에는 호스피스가 같이 있었읍니다. 미국 호스피스는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우리의 호스피스와 비교하여 많은 참고가 되어 앞으로의 호스피스 방향을 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호스피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그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호스피스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앞장서서 이 호스피스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호원들의 기도가, 의사들의 기도가 이 병원적 원들의 기도가, 학생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에 참여한 많은 간호원들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참 간호가 무엇인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겠어요. 기쁨을 갖고 싶어요. 아마 저에겐 굳은 신앙이 필요한가봐요.」 그렇습니다. 참다운 간호를 시작한 간호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것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주께서는 고통의 십자가 대신 기쁨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엔 하루 하루의 생활이 기쁨의 연속이며, 생의 모든것을 발견할 것이며, 고

통받는 환자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하느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하신 그 영원한 사랑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속에서 기쁨으로 호스피스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원 호스피스를 예들들면 간호원 호스피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원의 학문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원 호스피스는 간호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호스피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사가 간호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 성직자나 봉사자가 간호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간호란 직업은 간호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간호 호스피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에 기초를 둔 학문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또 그에 따라 간호원들을 참간호원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의 한 방법으로 우리보다 앞서있는 미국의 호스피스 간호원학문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 미국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배워오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와 같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원의 양성과 호스피스 병동의 설립입니다. 이들이 실현되면 학문적 뒷받침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호스피스 개념의 교육입니다. 현대의학은 환자를 어떻게 살리느냐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말기환자들을 어떻게 선종시킬 수 있나를 가르치는데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말기환자가 죽게되는 것은 의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사 자신들이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종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치료로써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종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요청됩니다.

셋째, 호스피스 유닛(Hospice unit)의 설립이 바람직합니다. 호스피스 유닛이란 병원안에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만 한데 모아서 치료하는 병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호스피스 유닛을 생각하면 그곳은 얼마나 어두운 장소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간호원들도 의사들도 지친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며, 환자들도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라움게도 제가 미국에서 본 한 호스피스 유닛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그 병원에서 가장 밝은 장소였으며, 기쁨에 넘친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은 하나같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만족감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실지로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은 그 병원에서 이동이 가장 적은 장소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책임자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장소는 죽는 장소가 아니라 대개가 집으로 퇴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입원기간은 대개 열흘 정도였으며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집으로 퇴원시켜 보살펴 주었습니다. 집으로 퇴원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간호원이 집에까지 찾아가 돌봐주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집을 방문하게 됨으로 환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에 안심하고 퇴원할 수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원의 말에 의하면 미국사람들은 주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호스피스 유닛의 설립 후 환자가족의 교육과 변화로 인하여 거의 80%가 집에 가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환자가족들로 사랑하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유닛의 설립은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진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됨으로 통증조절등 다른 대증요법이 매우 용이하며 간호원의 전문화로 그 질을 높일 수 있어 미국과 같은 학문적 수준에 도달하기에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병원에 있는 인공신장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인공신장실은 고도로 발달된 학문적 수준에 있어야만 운영되며 의사는 물론 간호원도 특수훈련을 그곳에서 받아야 하며 또 그로인해 학문적인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서 호스피스 유닛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여러가지 사정이 다르므로 한국 실정에 알맞는 호스피스 유닛의 설립을 위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하루속히 우리병원에도 호스피스 유닛이 설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째, 봉사자 호스피스의 활동화입니다. 미국 호스피스는 가정호스피스가 더 잘 발달되어 있으며 봉사자들이 이를 이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도 해주고, 같이 있어주기도 하며, 항상 간호원이나 의사, 성직자들과 연락을 하여 환자를 도와줍니다. 봉사자들의 이러한 역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봉사자 활동이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강남성모병원에서는 20여명의 봉사자가 원목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대개 환자들과 같은 나이들이므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특수한 호스피스를 할 수 있다

는 것이 담당수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봉사자호스피스는 앞으로 다른 호스피스보다 더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들이 본당의 레지오마리에나 연령회등과 연결될 때 그 성과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자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병원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속에서 찾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또 이곳을 사랑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우리 모두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

원들이 하루에 5분씩 또는 10분씩 환자를 방문하여 그 고통을 같이 나누다면 그것은 얼마나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근무하는 직장이 봉사의 장소가 된다면 우리의 매일 매일의 생활은 그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차 있을까요? 이 병원은 우리의 본당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자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

『신자 의사는 전 인간 위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진 의사는 영혼의 건강도 포함한 전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단 한 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은 인도적도 아니고 더구나 그리스도교적인 것도 아니다. 비오12세가 이태리의 암 전문 의사 클럽에서 연설하기를 「무엇보다도 의사는 인간성의 전체(영혼과 육신)를, 그 구성 요소 전부를,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신체적인 병상뿐만 아니라 그 심리 상태까지도 그 도덕적 정신적 이상과 그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가톨릭 의사는 「완전한 의술」의 전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의술이란 병자의 영적 정신적 요소에 대해 치료하는 것이다.』

《「수에번스」추기경의 ‘사랑과 자제’ 중에서》